

# 러,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대공세’ 가능성

### 크림반도 군사시설 폭발, 철학자 두긴 딸 사망 등 보복 명분 젤렌스키 “공격시 강력하게 반격”...명분 위한 자작극설도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이자 전쟁 발발 6개월이 되는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대공세’를 시작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이 커지고 있다.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전황이 교착되는 국면 속에서 최근 민감한 사건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달 9일과 16일, 18일 등 이달 들어 세 차례 크림반도 군사시설에서 의문의 폭발이 발생했다. 크림반도는 ‘푸틴의 성지’로 불릴 만큼 상징성이 있는 데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진 기지로 사용되는 요충지다. 20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극우 정치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이 차량 폭발로 숨졌다. 러시아가 이들 사건의 우크라이나를 지목하면서 ‘보복’을 명분으로 대규모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끌어오르는 러 내부...‘우크라이나 보복’ 강경론 최근 러시아 내부에서는 더 호전적인 자세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파 민족주의 이론가를 겨냥한 본토 폭탄공격 논란, 크

림반도에 대한 기습 등이 그런 기류를 불렀다. 두긴의 딸 다리아 두기나 숨진 차량 폭발이 일어난 지 이틀만에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은 우크라이나 공작원의 실명을 공개하며 ‘범인’을 특정했다. 러시아 관영 언론과 강경파는 즉각 보복을 촉구했다. 거기에 맞춰 푸틴 대통령은 “비열하고 잔혹한 범죄로 러시아인의 마음을 지닌 두기나가 숨졌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도 “야만적 범죄”라며 “배후에 자비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압도적인 전력차로 속전속결이 될 것으로 봤던 전쟁이 반년이 되도록 끝나지 않으면서 더 강한 공격으로 승전을 앞당겨야 한다는 압박도 러시아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 우크라이나, 관련성 부인...공격 명분 쌓으려는 러 ‘자작극’ 의심까지 우크라이나는 두기나의 폭사 사건이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고 강하게 부인한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두기나는 우리 영토에 있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도 아닌 그 사람한테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서방도 이번 사건이 내부 압력을 끌어올리고 외부에 공격 명분을 만드는 ‘가짜깃발 작전’일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푸틴 정권은 2014년 강제병합한 크림반도 흑해함대 기지가 최근 거듭 기습을 받아 사령관을 바꾸고 전환점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한 지 31년째인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가 옛 영토라는 러시아의 인식, 이를 실현하려는 ‘특별군사작전’(침공)의 상징성 때문에도 대규모 공격설이 힘을 받는다. 안드리 유소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대변인은 “러시아는 날짜나 상징에 집착한다”며 “미사일 공격 등 도발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격을 받으면 강력하게 반격하겠다고 맞섰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도 키이우에서 사람이 모이는 독립기념일 행사를 금지했다. 제2 도시 하르키우에서는 23~25일 야간 통행금지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남부 미콜라이우 역시 23, 24일 이틀간 재택근무 명령을 내리고 대규모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홍수로 파괴된 운하 복구하는 수단 시민들 수단 중부 자지라주 알마나길에서 수단 시민들이 홍수로 파괴된 운하를 복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핀란드 총리 또 사과...관저에서 친구들 찍은 부적절 사진 유출

### 산나 마린 총리 ‘광란의 파티’ 영상 이어 연일 논란

‘광란의 파티’ 영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이번엔 관저에서 친구들이 찍은 부적절한 사진에 관해 사과를 했다. 핀란드 공영방송 YLE는 23일(현지시간) 마린 총리가 관저에서 친구들이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을 찍은 데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소셜미디어에는 총리 관저에서 유명 여성 인플루언서 두 명이 웃옷을 거의 벗고 ‘핀란드’라고 적힌 명패로 가슴을 가린 채 키스하는 사진이

널리 퍼졌다. 마린 총리는 사진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는 7월 초 록 음악 페스티벌에 다녀온 뒤 친구들을 관저로 불러서 함께 사우나와 수영을 하고 시간을 보냈으며 사진은 이때 찍힌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관저 아래층 손님 화장실에서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이 적절하지 않다. 그 사진은 찍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사교활동이 핀란드 국가안보에 위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보안태세가 계속 유지됐고 참석자들은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관저 실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한 야당 정치인 겸 언론인은 트위터에 마린 총리가 업무를 보는 사진을 올리면서 문제가 된 사진과 배경이나 명패가 비슷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사진이 마린 총리가 다른 유럽 정상들과 화상 회의를 할 때 쓰는 책상 뒤에서 촬영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 ‘오싹’ or ‘천상의 아름다움’ 블랙홀 소리

### 나사 공개 평가 엇갈려...2억4천만 광년 페르세우스 은하단서 확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처음으로 ‘블랙홀의 소리’를 공개했다. 심연의 우주를 귀로 체험한 대중은 ‘오싹하다’, ‘천상의 아름다움이다’ 등 다양한 감상평을 내놓고 있다. NASA는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지구에서 약 2억4000만 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음향을 담은 34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무서운 느낌의 바람 소리나 괴물 신음을 연상케 하는 이 음향은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NASA는 앞서 5월 유튜브에 같은 영상을 올렸는데 당시 설명에서 “우주에 소리가 없다는 세간의 오해는 우주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진공이고 음파를 전달할 매질이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은하단에는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양의 가스가 있어 음파 전달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블랙홀 소리 데이터는 약 20년 전인 2003년에 NASA의 찬드라 X선 관측소의 천문학자들이 파악했다. 이후 연구자들은 블랙홀에서 방출한 압력파

가 은하단의 뜨거운 가스에 잔물결을 일으키고, 이것이 음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NASA는 음향화 작업을 통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보기로 했으며, 음향 신호를 57, 58 옥타브로 조정함으로써 사람의 청력 범위 안에서 소리를 재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NASA의 블랙홀 소리가 실제 블랙홀 옆에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영국 쉐드필드 마이클 스미스 교수는 “인간의 귀가 그런 음파를 감지할 정도로 민감하지는 않다”며 “그곳에 음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 우리가 들을 수 없으려면 많은 가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최악 가뭄 유럽, 47% 땅 마르고 17% 식물 타격

### EU집행위, 500년 만...홍작 넘어 에너지 위기까지 악화

유럽에서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이 덮인 지역이 3분의 2에 달해 500년 만에 최악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유럽(EU) 집행위원회 산하 연구 조직인 세계가뭄관측(GDO)은 2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초부터 유럽 수많은 지역에 가뭄이 발생해 지금까지 악화해왔으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8월 10일 현재 유럽 가뭄 상태는 47%가 ‘경고’, 17%가 ‘경계’에 해당했다고 GDO는 분석했다. GDO는 가뭄 상태를 ‘주의’(watch), ‘경고’(warning), ‘경계’(alert) 등 3단계로 나눈다. 두 번째로 심한 ‘경고’는 땅이 이미 말라붙은 상태, 가장 심한 ‘경계’는 식물이 악영향이 미치는 상태를 뜻한다. EU 집행위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유럽 가뭄

이 “최소 500년 만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첫 평가 과정일 뿐이며, 추후 최종 자료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행위는 이번 가뭄이 앞으로도 유럽 남부 일부 지역에서 몇 달 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GDO는 유럽 지중해 지역에서는 현재 상황이 최소 올해 11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가뭄과 그로 인한 산불 등의 여파로 콩, 옥수수, 해바라기 위주로 여름철 농사가 이미 흉작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 공급을 줄이는 가뭄과 물을 더 빨리 증발시키는 폭염 때문에 유럽 전역의 수위 유지가 전례 없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줄기가 말라붙으면서 수력 발전이 20% 감소해 가뭄이나 고조된 에너지 위기까지 악화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연합뉴스

## 최악 폭염·가뭄 중국, 가을작황 위해 인공강우 로켓 동원

60여 년 사이 최악의 폭염과 가뭄을 겪고 있는 중국이 가을 작황에 미칠 타격을 줄이기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중국 농업농촌부, 수리부, 응급관리부, 기상국 등 4개 부처는 22일 공동으로 발령한 ‘긴급 통지’에서 폭염과 가뭄이 중국의 가을 곡물 생산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지는 가뭄이 가을 곡물 수확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 발전에 주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식량안보 보장의 정치적 책임을 결연히 감당할 것을 피해 지역 당국에 촉구했다. 특히 수리부는 농업용 관개용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호수·저수지 등 수자원의 과학적 관리를 강화하고, 기상국은 가뭄이 심한 지역에 인

공 강우용 항공기를 적시에 띄우고, 인공강우용 로켓 등 필요한 물자들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통지는 밝혔다. 올해 중국 남부의 폭염과 가뭄은 중국이 정식으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61년 이후 가장 지속시간이 길고, 피해 범위도 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가을 수확 곡물 중 쌀의 비중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요 쌀 생산 지역의 피해가 커 이번 가뭄은 중국의 식량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매체 차이신은 장시성에서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240만여 명이 피해를 보고, 그 중 2만5000명이 식수난을 겪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 든든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